

##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정하윤<sup>1</sup>, 이경수<sup>2\*</sup>

<sup>1</sup>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sup>2\*</sup>경남도립거창대학 보건의료행정과

###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Ideation in Nursing Students

Ha-Yun Jung<sup>1</sup>, Kyung-Soo Lee<sup>2\*</sup>

<sup>1</sup>Dept. of Nursing,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sup>2\*</sup>Dept. of Health&Medical Administration,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Received March 16, 2015: Revised March 23, 2015: Accepted March 30, 2015)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tend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steem, mental health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338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in 2 nursing colleges in Gyeongsangnam-do.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November 1 to 10, 2014.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 First, the average of stress, self-esteem, mental health, and suicidal-ideation was  $2.60\pm 0.57$ ,  $3.64\pm 0.44$ ,  $2.18\pm 0.38$ , and  $1.46\pm 0.37$  points. Second,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ersonality, adaption of environment, health status,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and satisfaction on school life. Third, suicidal ideation was correlated with mental health positively and self-esteem negatively. Forth, the influencing factor in suicidal ideation of participants was mental health,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environment,  $R^2=.669$ .

**Conclus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and regular education program to decrease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raise self-esteem, mental-health, and adaptation of environment are required, practical education program should to conducted and studies showing its results and effect are also needed.

**Key Words :** Mental health, Nursing students,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Stress

---

\* Corresponding Author : [lksgoodluck@hanmail.net](mailto:lksgoodluck@hanmail.net)

## 1. 서론

우리나라는 자살률에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1위를 고수하여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sup>1)</sup>.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총 자살(고의적 자해)건수는 약 14,427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2000년 자살 사망자 13.6명보다 25.9명이 더 증가하였다<sup>2)</sup>. 그 중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대부분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안겨주었다<sup>2)</sup>.

자살은 각종 정신질환, 알코올과 약물의 중독, 스트레스, 빈곤, 분노 등의 다양하고 커다란 충격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합 상승하여 나타난다고 여러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자살이 폭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3)</sup>. 생명존중에 대한 경시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이자 장차 한 나라의 발전을 담당할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의 자살’은 인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손실과 함께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대학생은 사회가 보호해주는 청소년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닌 상태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며,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해 위기와 중압감에 시달리며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전환기이다<sup>4)</sup>. 이와 같이 성인이 되는 적응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 방향, 좌절감, 슬픔, 고통, 우울 및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대학생들은 작은 좌절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낮은 자아

존중감과 정서적 취약성,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도피책으로써 자살을 고려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sup>6)7)</sup>.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겪는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 문제,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외에도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량, 엄격한 행동규범, 강의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도 조직체계가 다른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실습수행, 환자에 대한 책임감, 간호사로서 전문적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과 외 활동 및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 간호학과의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예방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sup>10)</sup>. 그러기 위해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을 근절시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살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고, 이에 개입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개발, 교육함으로써 자살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하여 가까운 미래에 의료인이 되어 심신의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보건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위험 수위의 자살생각을 가진 현대인들의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예측인자로 스트레스<sup>10)11)12)13)</sup>, 자아존중감<sup>13)14)</sup>, 우울<sup>10)11)12)</sup>, 영성<sup>15)</sup>등을 보고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행동연구에서 또한 자살문제는

스트레스<sup>16)</sup>,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sup>17)</sup>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점은 자살생각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우울 등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연구<sup>8)</sup>, 자살생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sup>18)</sup>,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up>9)</sup>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학년을 구분하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당장 국가고시를 치른 후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로 환자 간호를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살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살생각과 시도가 성인기에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정도를 알아보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의료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간호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전인간호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대상 및 방법

###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2개의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과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상실습을 종료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338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6 program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f$ )= .15,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0, 예측변인의 수 14개로 했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338명은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으므로,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 Yoo 등<sup>19)</sup>이 개발하고, Park<sup>20)</sup>이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59문

항으로써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 등<sup>19)</sup>이 도구를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Park의 연구<sup>20)</sup>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2) 자아존중감 : Rosenberg<sup>21)</sup>가 개발하고, Moon 등<sup>22)</sup>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문항(3, 5, 8, 9, 10번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Moon 등의 연구<sup>22)</sup>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3) 정신건강 : 정신건강은 Derogatis 등<sup>23)</sup>이 개발한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Kim 등<sup>24)</sup>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SCL-90-R을 Kang 등<sup>25)</sup>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설문조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Kang 등의 연구<sup>25)</sup>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4) 자살생각 : Reynolds<sup>26)</sup>가 개발한 총 30문항의 7점 척도인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우리나라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4문항, 5점 척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Choi 등<sup>15)</sup>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현재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자가 보고식 척도로서,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자살의도와 계획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Choi 등의 연구<sup>15)</sup>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3.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먼저,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장에게 허락을 구한 후,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부하여 전량 회수되었으며, 이 중 설문응답내용이 부실한 12부를 제외한 338부(총 회수율 96.6%)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20분~25분이 소요되었다.

### 3.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은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의 차이는 변수에 따라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결과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86.1%(291명), 남자는 13.9%(4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05± 2.45세로, 22세 미만이 64.5%(218명), 22세 이상이 35.5%(120명)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36.7%(127명), '없다'는 62.4%(211명)이었으며, 가정경제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73.4%(248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성격은 '외향적인 편'이 48.5%(164명), '보통' 39.6%(134명), '내성적인 편' 11.8%(40명)이었고, 환경적 적응력은 '잘 적응하는 편' 18.3%(62명), '보통' 79.3%(268명),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2.4%(8명)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 55.9%(189명), '좋지 않은 편' 44.1%(149명)이었으며,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29.9%(101명), '보통' 47.0%(159명), '건강하지 않은 편'은 23.1%(7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적은 3.0이상 3.5미만인 경우가 44.4%(150명), 3.5이상 4.0미만이 45.9%(155명)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0.6%(171명), 학교생활만족도는 '불만족'이 67.2%(227명), 실습만족도는 '불만족' 62.7%(2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47	(13.9)	
	Female	291	(86.1)	
Age (years)	< 22	218	(64.5)	22.05±2.45
	≥ 22	120	(35.5)	
Religion	Yes	127	(36.7)	
	No	211	(62.4)	
Economic levels of family	Good	30	(8.9)	
	Normal	248	(73.4)	
	Bad	60	(17.8)	
Personality	Extrovert	164	(48.5)	
	Moderate	134	(39.6)	
	Introvert	40	(11.8)	
Adaptation of environment	Well	62	(18.3)	
	Moderate	268	(79.3)	
	Bad	8	(2.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89	(55.9)	
	Bad	149	(44.1)	
Health status	Good	101	(29.9)	
	Normal	159	(47.0)	
	Bad	78	(23.1)	
Grade point average	≤2.99	16	(4.7)	
	3.0~3.49	150	(44.4)	
	3.5~3.99	155	(45.9)	
	≥4.00	17	(5.0)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171	(50.6)	
	Unsatisfied	167	(49.4)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11	(32.8)	
	Unsatisfied	227	(67.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26	(37.3)	
	Unsatisfied	212	(62.7)	

자살생각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최소 1.00점, 최대 2.93점으로 평균 2.60±0.57점이었고, 자아존중감 점수는 5점 만점에 최소 2.50점, 최대 4.80점으로 평균 3.46±0.44점이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최소 1.00점, 최대 2.93점으로 5점 만점에 평균 2.18±0.38점이었으며, 자살생각 점수는 최소 1.00점, 최대 3.14점으로 평균 1.46±0.37점(5점 만점)이었다.

#### 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의 차이는

Table 2. Degree of Stress, Suicidal-ideation, Self-esteem and Mental-health (N=338)

Variables	Item	Possible range	Min	Max	Mean±S.D.
Stress	59	0.00-4.00	1.00	2.93	2.60±0.57
Self-esteem	10	1.00-5.00	2.50	4.80	3.64±0.44
Mental-health	83	1.00-5.00	1.00	2.93	2.18±0.38
Suicidal-ideation	14	1.00-5.00	1.00	3.14	1.46±0.37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성별(p<.001), 종교유무(p<.001), 건강상태(p<.001), 전공만족도(p<.001), 실습만족도(p<.001)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

경제상태(p=.022), 적응력(p<.001), 건강상태(p=.044), 성적(p<.001), 학교생활만족도(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은 가정경제상태(p<.001), 성격(p<.001), 적응력(p<.001), 전공만족도(p=.020), 학교생활만족도(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성격(p<.001), 적응력(p<.001), 건강상태(p<.001), 전공만족도(p=.015), 학교생활만족도(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stress, suicidal-ideation, self-esteem and mental-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tress		Self-esteem		Mental health		Suicidal-ideation	
			M±SD	t(F)(Duncan)	M±SD	t(F)(Duncan)	M±SD	t(F)(Duncan)	M±SD	t(F)(Duncan)
Gender	Male	47	2.47±0.79	-5.418(<.001)	3.75±0.48	1.758(.084)	2.19±0.48	0.66(.963)	1.49±0.44	-.541(.589)
	Female	291	2.87±0.49		3.62±0.43		2.18±0.39		1.46±0.36	
Age (years)	< 22	218	2.61±0.57	1.87(.852)	3.64±0.43	2.01(.841)	2.19±0.38	1.33(.895)	1.47±0.37	1.07(.315)
	≥ 22	120	2.60±0.57		3.63±0.46		2.18±0.39		1.46±0.38	
Religion	Yes	127	2.50±0.38	-5.313(<.001)	3.64±0.45	2.66(.791)	2.15±0.37	-1.327(.185)	1.43±0.35	-1.462(.145)
	No	211	2.83±0.63		3.63±0.43		2.20±0.30		1.49±0.38	
Economic levels of family	Good <sup>a)</sup>	30	2.56±0.52	1.346(.262)	3.84±0.45	3.888(.022)	2.06±0.35	10.146(<.001)	1.44±0.36	1.325(.260)
	Normal <sup>b)</sup>	248	2.64±0.58		3.63±0.44	(a>b,c)	2.18±0.38	(c>b>a)	1.51±0.37	
	Bad <sup>c)</sup>	60	2.46±0.52		3.57±0.45		2.31±0.37		1.53±0.43	
Personality	Extrovert	164	2.59±0.77	978(.379)	3.62±0.44	2.257(.106)	2.10±0.34	9.681(<.001)	1.33±0.31	9.451(<.001)
	Moderate	134	2.63±0.45		3.70±0.47		2.16±0.35	(c>a)	1.45±0.35	(c>a,b)
Adaptation of environment	Well <sup>a)</sup>	62	2.74±0.36	3.359(.056)	3.93±0.41	26.698(<.001)	2.14±0.37	9.859(<.001)	1.44±0.33	8.572(<.001)
	Moderate <sup>b)</sup>	268	2.66±0.56		3.59±0.42	(a>b>c)	2.21±0.37	(c>a)	1.47±0.37	(c>a)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8	2.59±0.61		3.03±0.14		2.41±0.53		1.64±0.55	
	Bad	189	2.60±0.59	-1.52(.079)	3.63±0.45	-3.31(.741)	2.16±0.38	-8.13(.417)	1.45±0.37	-5.31(.596)
Health status	Good <sup>a)</sup>	101	2.48±0.43	37.781(<.001)	3.71±0.44	2.278(.044)	2.24±0.43	1.506(.223)	1.31±0.33	9.984(<.001)
	Normal <sup>b)</sup>	159	2.64±0.54	(c>b>a)	3.59±0.45	(a>c)	2.16±0.38		1.46±0.37	(c>b>a)
	Bad <sup>c)</sup>	78	2.94±0.56		3.51±0.41		2.25±0.37		1.65±0.38	
Grade point average	≤ 2.99 <sup>a)</sup>	16	2.58±0.54	1.348(.259)	3.29±0.37	5.886(<.001)	2.24±0.39	1.38(.937)	1.53±0.38	1.85(.907)
	3.0-3.49 <sup>b)</sup>	150	2.66±0.49		3.60±0.45	(a>b,c,d)	2.18±0.38		1.45±0.37	
	3.5-3.99 <sup>c)</sup>	155	2.67±0.64		3.69±0.40		2.18±0.39		1.46±0.38	
	≥ 4.00 <sup>d)</sup>	17	2.49±0.58		3.81±0.52		2.19±0.38		1.46±0.68	
	Satisfied	171	2.47±0.43	-8.558(<.001)	3.66±0.47	7.90(.430)	2.11±0.38	-2.330(.020)	1.32±0.37	-2.441(.01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	167	2.84±0.59		3.62±0.40		2.24±0.37		1.57±0.37	
	Satisfied	111	2.58±0.59	-1.424(.156)	3.50±0.43	-3.957(<.001)	2.28±0.40	3.315(.002)	1.56±0.39	3.260(<.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nsatisfied	227	2.64±0.55		3.70±0.43		2.11±0.37		1.41±0.35	
	Satisfied	126	2.32±0.45	-8.023(<.001)	3.63±0.47	-1.03(.918)	2.16±0.38	-.974(.331)	1.43±0.37	-1.167(.24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212	2.97±0.56		3.64±0.42		2.20±0.38		1.48±0.37	

a, b, c ; Classification of Duncan test

4.4.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 $r=-.320, p<.001$ ). 또한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r=-.313, p<.001$ ), 정신건강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r=.984, p<.001$ ).

Table 4.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38)

Variables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Suicidal-ideation
	r(p)			
Stress	1			
Self-esteem	.073 (.182)	1		
Mental-health	-.033 (.547)	-.320 ( $<.001$ )	1	
Suicidal-ideation	-.029 (.591)	-.313 ( $<.001$ )	.984 ( $<.001$ )	1

4.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 적응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더미 변수로 전환한 후 포함시켰으며, 또한 연속변수인 연령,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을 변수로 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먼저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진단)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식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은 .96로 0-4 범위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가 .174~.855로 0.1이상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도 1.047-1.292로 기준치(10)을 넘지 않아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검정 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은 .000~.090로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5228.064, p<.001$ ), 예측모형의 Adjust R<sup>2</sup> 값은 .669로, 측정변수들의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66.9%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건강( $\beta=.980, p<.001$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 $\beta=.594, p<.001$ ), 적응력( $\beta=-.20, p=.040$ ) 순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 in Suicidal Ideation of the Participants (N=338)

Factors	B	S.E	$\beta$	t	p
Constant	.252	.027		9.391	$<.001$
Mental-health	1.005	.011	.980	92.369	$<.001$
Adaptation of environment	-.018	.009	-.020	-2.066	.040
Self-esteem	1.510	.006	.594	22.755	$<.001$
Stress	.000	.007	.010	.026	.979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003	.008	-.004	-.346	.729
Age	.000	.002	-.002	-.240	.810
Health status	-.014	.007	-.019	-1.883	.061
Personality	.004	.006	.008	.804	.42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008	.008	.010	.989	.323
Adjusted R <sup>2</sup> = .669					
F/(p) = 5228.064 ( $<.001$ )					

5. 고찰

본 연구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3학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의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60 \pm 0.57$ 점이었고, 대상자들의 성별, 종교유무,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 2·3학년 286명을 대상으로 한 Sohn 등의 연구<sup>27)</sup>에서 스트레스가 평균  $2.58 \pm 0.53$ 점인 것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3학년의 특성상 취업과 국가고시를 앞둔 상황이라 심리적 중압감이 커서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스트레스 점수는 비슷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에 대해 연구한 Jung 등의 연구<sup>28)</sup>결과 평균  $1.25 \pm 0.55$ 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온 점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정경제상태, 적응력, 스트레스 대처방법,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가정경제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Park의 연구<sup>20)</sup>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일반적 특성에 어떠한 변수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연구마다 결과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 조사 및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64 \pm 0.44$ 점으로, 이는 Jung 등의 연구<sup>18)</sup>에서  $3.48 \pm 0.52$ 점, Jung 등의 연구<sup>28)</sup>에서  $3.33 \pm 0.42$ 점, Lee의 연구<sup>4)</sup> 결과  $3.53$ 점과 비슷하였으며, Park의 연구<sup>14)</sup> 결과  $3.31$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이상적 자기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기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다양한 변화에 적

응해 나가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sup>29)</sup>. 특히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 향상 및 임상현장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간호사 자신의 소진과도 관계가 있다<sup>18)</sup>.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대상자들의 가정경제상태, 적응력, 건강상태,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sup>13)14)18)28)</sup>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Park 등<sup>30)</sup>은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전공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고 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고, Lee<sup>4)</sup>는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경제상태 및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교육적인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은 5점 만점에  $2.18 \pm 0.38$ 점으로, 이는 Kang 등의 연구<sup>25)</sup> 결과  $2.03 \pm 1.20$ 점, Moon 등의 연구<sup>22)</sup> 결과  $2.22 \pm 0.60$ 점과 비슷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가정경제상태, 적응력,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Jung 등의 연구<sup>28)</sup>결과와 거의 흡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과 졸업반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은 미래의 나이팅게일로서 추후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이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추후 임상현장

에서 환자 간호의 질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잠재적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예비 의료인이 될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및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경 적응력을 높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격려하며, 전공에 대한 만족과 실습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임상현장에서의 사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자살생각은 평균 1.46±0.37점이었고, 이들의 자살생각은 대상자들의 성격, 적응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이 Choi 등의 연구<sup>15)</sup>결과 1.73±0.73점, Jung 등의 연구<sup>18)</sup>결과 1.74±0.64점 인 것에 비해 낮게 나온 점수이지만, 보건계열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해 연구한 Park의 연구<sup>11)</sup> 결과 0.20±0.21점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것에서 낮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대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sup>1)</sup>, 자살생각을 하고 자살 계획을 세우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고 보고한 Kessler 등의 연구<sup>31)</sup>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일반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점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간호사 자살한 이유가 태움’이라는 기사 제목 하에 간호사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가 대학생활에서부터 형성된 것은 아닌지, 환자간호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엄격한 학생교육이 학습되어 학교생활에서 선후배, 친구관계, 교수-학생 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서로에게 고충을 주고 있는 않은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적 조사와 그에 따른 대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

<sup>49)10)11)18)</sup>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결과 중 하나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이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인데 따라서 학교만족도와 전공만족도, 성적이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자살생각은 심리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내부와 외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예를 들면 공동체 의식 함양, 친구 관계 향상 프로그램, 생명존중프로그램, 성격개조 프로그램 등 생명에 대한 존중 및 인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심층 면담 등의 연구들과 밝혀진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다른 제 변수들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간,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간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건강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정신이 건강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자살생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적하고 있는 Jung 등의 연구<sup>18)</sup> 및 Park의 연구<sup>14)</sup>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시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자살생각이 낮아지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한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건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 환경적응력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Shin 등의 연구<sup>9)</sup>와 Back 등의 연구<sup>10)</sup> 결과에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며, 정신건강이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주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상관성도 없었고, 영향 요인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sup>8)9)10)</sup>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연구도구로 인한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동일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반복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Kessler 등<sup>31)</sup>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변 환경과의 상황적 갈등과 소외감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 시키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사회적 지지를 단절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켜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급속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예비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관리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을 알아보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2.60±0.57점(4점 만점), 자아존중감은 3.64±0.44점(5점 만점), 정신건강 2.18±0.38점(5점 만점), 자살생각 2.46±0.37점(5점 만점)이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성별, 종교유무,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경제상태,

적응력, 건강상태, 성적,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은 가정경제상태, 성격, 적응력,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자살생각은 대상자의 성격, 적응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정신건강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건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 적응력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66.9%로 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K도 소재의 2개의 3년제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 다른 학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연구의 시행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적응력으로 설명력은 높았으나 더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문헌을 고찰, 자살생각 관련 변수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환경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2010 Cause of death on the statistical results, 2011.
2.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2013 Cause of death on the statistical results, 2014.
3. Kim YS.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2012.
4. Lee JS.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13.
5. Gong M., & Kang YJ.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e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Focus on the College of Pyongtaek Cit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12;19(1):1-22.
6. Berman AT., & Synder S. Kozier & Erb's Fundamentals of Nursing: Concepts, Process and Practice(7th ed). Prentice Hall Health. 2004;1138-1150.
7. Kim CB., Jung TY., Hwang SW., & Kim, JH. The Factors associated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2):161-177.
8. Cho HS.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The Academy Society of Parent child Health*. 2009;12(1):3-14.
9. Shin MK., Lee HL., & Won JS. Influencing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4):419-428.
10. Back SS., Ha EH., Ryo EN., & Song MS.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2;18(4):157-163.
11. Park DS.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2):728-736.
12. Sohn JN.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7;16(3):267-275.
13. Kim MK.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2012;17(1):61-83.
14. Park SY. The Effects of Campu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Perfectionism on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10.
15. Choi SY., & Kim SN.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2):190-199.
16. Kim YJ., & Lee CS.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6):539-547.
17. Jeon KS., Park SY., & Jo SH.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2;6(4):295-308.
18. Jung HY., & Jung KI. A Study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3):149-160.
19. Yoo SJ., Jang SJ., Choi EK., & Park JW.

-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38(3):410-419.
20. Park JY. Stress, Stress Res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2011.
  21.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347.
  22. Moon H., Jung MJ., & Kim JY.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1;19(3):253-260.
  23. Derogits LR., Lipman RS., & Covi L. SCL-90-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m Bull*. 1973;9:13-28.
  24. Kim JH., & Kim GI. Korean Version of the SCL-90-R Standardization. *Mental Health Research*. 1984;2:278-311.
  25. Kang ES., Kim YH., & Lee KL. The Effect of Holistic Health Program o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5): 2172-2179.
  26. Reynolds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8;17-30.
  27. Son YJ., Choi EY., & Song YA.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0;18(4):345-351.
  28. Jung HY., & Kwon JO.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4):191-204.
  29. Stuart S.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Mosby. 1983;1014.
  30. Park YG., & Kang IS. University Students' of Campus Life Stress,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2;6(4):177-189.
  31. Kessler RC., Borges G., & Walter EE.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9;56:617-626.